

# 미국 평단, 방탄소년단 신보 '맵 오브 더 솔:7' 극찬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 ‘맵 오브 더 솔:7’ 은 그들 자신에 대해 경의를 나타낸다.” 면서 “항상 함께 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면서 솔로곡으로 빛날 뿐 아니라 공동 작업이 눈에 띄는 앨범” 이라며 극찬했으며, 음악매체 롤링스톤은 이 앨범을 두고 “방탄소년단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통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대 최고의 앨범” 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세 곡을, 앨범 차트에 2장의 음반을 동시에 진입시켰다.

3일 공개된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4위에 오른 신곡 ‘온’ (ON)을 비롯해 국 솔로곡 ‘시차’ (My Time, 84위), 지민 솔로곡 ‘필터’ (Filter, 87위)등 2곡을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에 동시에 올렸다.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에도 두 장의 앨범을 올려냈다. 1위로 데뷔한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7’ (MAP OF THE SOUL : 7) 외에도 2018년 8월 발매된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가 133위를 기록하며 재진입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발매한 새 앨범이 미국 평론 사이트인 ‘메타크리틱’ (Metacritic)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메타크리틱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방탄소년단 ‘맵 오브 더 솔 : 7’ 은 메타스코어 83점을 기록해 최고 등급인 ‘전반적인 극찬’ (Universal acclaim)을 받았다. 메타크리틱은 여러 매체가 앨범,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에 남긴 리뷰를 가중 평점을 적용해 구한 단일 점수 ‘메타스코어’ 를 발표한다. 메타스코어가 81점을 넘기면 ‘전반적인 극찬’ 등급을 받는다

# 알렉사, 미국 시장 공략 나섰다



미국 출신 K팝 가수 알렉사(AleXa·사진)가 미국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본격적인 미국 진출에 나선다.

소속사 지비레이블은 4일 지난달 미국 미디어 에이전시 ‘아이씨엠 파트너스’ 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고는 미국 진출 실무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씨엠 파트너스’ 은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뉴욕·런던 등지에 지사가 있는 대형 미디어 에이전시이다. 음악산업, 방송 프로그램, 영화, 출판, 공연, 뉴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이씨엠 파트너스’ 는 알렉사의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축제 등에서도 활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알렉사는 2018년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48’ 에 출연하며 처음 얼굴을 알렸다. 이후 방탄소년단, 엑소 등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콘텐츠 제작업체 ‘자니브로스’ 레이블 지비레이블 소속인 그는 지난해 10월 ‘밤’ (Bomb)으로 데뷔했다. ‘밤’ 은 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알렉사는 오는 4월 중 미국으로 건너와 여러 매체에 잇달아 출연하는 ‘미디어 투어’ 를 할 예정이다.

# 홍상수 감독, 베를린영화제 감독상 수상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사진)이 영화 ‘도망친 여자’ 로 감독상을 받았다.



한번도 떨어져 지낸 적 없던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두 번의 약속된 만남과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3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 ‘감희’ (김민희)의 이야기를 담았다. 서영화, 송선미, 김새벽, 권해효 등도 출연했다.

홍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 영화가 ‘작은 것에서 출발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다’ 는 평가에 대해 “나는 큰 그림을 그리거나 큰 의도를 갖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나는 작은 세계에서 조그맣게 사는 사람” 이라며 “큰 의도를 갖고 만드는 유혹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한다. 강한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고 말했다.

홍 감독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70회 베를린영화제 시상식에서 은곰상인 감독상을 수상했다. 홍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나를 위해 일해준 사람들, 영화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베를린영화제는 칸영화제, 베네치아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린다. 한국인이 베를린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건 2004년 <사마리아>의 김기덕 감독 이후 두 번째이다.

‘도망친 여자’ 는 홍 감독의 24번째 장편이다. 결혼 후

1306호 숫자퍼즐 정답

|   |   |   |   |   |   |   |   |   |
|---|---|---|---|---|---|---|---|---|
| 3 | 2 | 6 | 7 | 4 | 1 | 8 | 9 | 5 |
| 1 | 5 | 8 | 6 | 2 | 9 | 4 | 3 | 7 |
| 4 | 7 | 9 | 3 | 8 | 5 | 1 | 2 | 6 |
| 5 | 3 | 1 | 8 | 7 | 6 | 2 | 4 | 9 |
| 6 | 9 | 2 | 5 | 3 | 4 | 7 | 8 | 1 |
| 7 | 8 | 4 | 9 | 1 | 2 | 5 | 6 | 3 |
| 8 | 6 | 5 | 4 | 9 | 7 | 3 | 1 | 2 |
| 9 | 1 | 3 | 2 | 5 | 8 | 6 | 7 | 4 |
| 2 | 4 | 7 | 1 | 6 | 3 | 9 | 5 | 8 |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 원만하지 못한 배우자 인연(因緣)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인생살이에서 한 사람의 배우자와 평생을 원만하게 해로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팔자(八字)와 운(運)의 흐름을 잘 만나야 가능한 일이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타고나는 팔자(八字)와 운(運)의 흐름에 따라 한 사람의 배우자와 해로(偕老)를 하기도 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 배우자를 만나보아서 좋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갈등이나 현실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중년의 신사분이 필자의 사무실에 방문한 것이다. 그 분의 사주팔자를 보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선생님 사주(四柱)는 그래도 먹을 복이 있는 사주가 되고 전문직으로 성공할 팔자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배우자 인연에 굴곡이 따르는 팔자가 됩니다. 그래도 선생님 사주에는 자식이 아주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으로 5남매를 두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그런데 선생님 팔자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기운이 매우 약하고 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운(運)의 흐름도 배우자의 덕(德)을 돕지 못하는 흐름이 되는데요.”라고 말을 하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 번이나 결혼을 하고 각각 만난 전처들에게서 자식을 여럿 두었지만 모두 결혼생활에 실패하고 지금은 양쪽에다 자식들 양육비를 지불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선생님의 팔자 자체가 배우자의 덕을 원만하게 입지

못하는 사주가 되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성공 번영하는 자식을 두는 사주입니다. 그러나 항상 과로하는 사주가 되므로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제가 또 다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것이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아마 내년에 닭띠를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가능하지만 반드시 서로 거처하는 방을 따로 써야 합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다. 한 평생을 한 사람의 배우자와 해로(偕老)할 수 있는 것도 복(福)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 직업, 사업, 재물 | 궁합, 애정 | 714.534.4645 |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